

【토론문 1】

「東亞細亞 古代 歷史文化와 徐福」 토론문

강창룡*

李永先 선생·尹明哲 선생, 曲金良 선생께서 「徐福은 평화의 使者이다。」·「徐福의 해상활동에 대한 연구」·「徐福 정서」의 내용들을 발표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제주학회에서 일주일 전에 갑자기 토론을 부탁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朝鮮後期 社會史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는 門外漢입니다. 발표문에 수록된 방대한 양의 서적을 거의 접하지 못한 저로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흐름과 徐市過此에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 평소에 지니고 있던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선생께서 발표하듯이 徐福[徐市]은 秦나라 始皇帝 때 方士입니다. 이 徐福에 관한 기록은 司馬遷의 『史記』 「秦始皇本紀」·「淮南衡山列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司馬遷의 『史記』 「太史公自序」에는 “내[司馬遷]가 이르는 바 古事를 서술하고, 그 대대로 傳承하여 내려오는 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創作이 아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太史公自序」에는 “始皇帝가 이미 서서 6國을 한데 합치고 兵器를 녹여서 쇠북을 만들었다. 이에 戰爭[兵革]을 쉬고 王號를 높여 皇帝라 일컬었으며 武力을 과시하였다. 2世[胡亥]가 天命을 받았으며 子嬰은 항복하여 포로의 몸이

* 제주학회 편집위원

되었다.”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秦始皇本紀」입니다. 始皇帝는 6國을 통일[始皇帝 26년, B. C 221]한 후에 秦나라의 東[東海·朝鮮]·西[臨洮·羌中]·南[北嚮戶]·北[陰山·遼東]의 경계를 天下로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느 지역에 어떤 地名이 있는 지를 확인한 것인지? 李永先 선생과 曲金良 선생께 문의합니다. 이를테면 秦나라 始皇帝는 그 당시에 天下 世界가 어디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또한 秦나라 당시에 작성한 옛 地圖가 現存하는 것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李永先 선생과 曲金良 선생께 문의합니다. 왜냐하면 周代 이래로 地圖 製作을 담당했던 官職인 直方氏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中國 史書로는 范曄의 『後漢書』 「東夷傳 - 韓」條에 나타나고 있는 ‘州胡國’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기록인 司馬遷의 『史記』나 班固의 『漢書』에는 州胡國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史記』에는 黃帝로부터 司馬遷이 살던 당시(B. C 104년)까지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秦나라는 B. C 221년부터 B. C 206년까지 존속하였습니다. 그러기에 司馬遷의 『史記』를 토대로 볼 때에 秦나라 始皇帝는 당시에 현재 제주도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文獻인 『世宗實錄地理志』(1432년), 『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 『耽羅志』(1652년), 『南宦博物』(1704년), 『濟州大靜旌義邑誌』(1780년), 『旌義郡邑誌』(1780년~1789년), 『耽羅誌草本』(1841년), 『耽羅誌』(1848년 3.월 이후), 『耽羅紀年』(1918년), 『南溟小乘』(1577년 11월~1578년 3월), 『南槎錄』(1601년 8월~1602년 1월), 『南遷錄』(1679년 7월~1681년 10월), 『南槎日錄』(1679년 8월~1680년 4월), 『知瀛錄』(1694년 7월~1696년 9월), 『耽羅錄』(1841년 3월~1843년 9월) 등등에서 正房淵과 徐市過此에 관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의 문헌들 속에는 正房淵의 情景에 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徐市過此에 관한 내용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만 肅宗 38년(1712) 10

월에 赴任하여 41년(1715) 5월에 遞任한 南九明 濟州判官의 『寓庵先生文集』 卷4에는 「神仙說」과 「不死草辨」條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不死草辨」條에는 “自古談神仙者 皆言三神山有不死草 秦童漢使接觸連檣 遍求於東南海中 而卒不得不知者 以爲不死草實有而難求 - 下 略-”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秦나라의 童男童女와 漢나라 使臣이 不死草를 찾으려 東南쪽에 있는 바다 가운데로 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다음에 徐福이나 徐市過此에 관한 내용이 있을 줄로 알고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徐福이나 徐市過此에 관한 내용 자체는 없었습니다.

金錫翼의 『心齋集』 영인본[1990년 7월 刊行]에는 1922년에 集成한 「破閒錄(上)」이 있습니다. 이 「破閒錄(上)」에는 秦나라 方士인 徐市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西歸浦沿邊有峭壁 不啻數千仞 下臨滄海 鯨濤洶湧 世傳壁半有秦方士徐市 所刻字痕云 先是牧使白樂淵 巡行到此 人以此說告之 遂命自壁上 以長繩縋 一人下垂引之 摸其字跡而還 盖字體如科斗雕虫者 凡十二個字 而不可解得云”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白樂淵 濟州牧使(1877년 1월 赴任~1881년 5월 遞任)와 관련된 徐市の 蝌蚪[科斗] 雕虫 12글자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지난 1992년에 정방폭포에다 岩壁 刻字에 관한 학술 조사를 했으나 徐市過此라는 磨崖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金錫翼이 1918년에 편찬한 『耽羅紀年』은 編年體로 濟州 歷史를 정리했습니다. 이 『耽羅紀年』에는 白樂淵 濟州牧使와 徐市の 蝌蚪 雕虫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破閒錄(上)」은 高麗 시대부터 朝鮮 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에서 口傳으로 전해오던 傳說과 逸話 등을 망라하여 정리한 野史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1922년에 集成한 「破閒錄(上)」, 정방폭포에 현존하지 않는 徐市過此를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220년 전에 徐福과 관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1992년에 岩壁 刻字를 학술 조사 중에 正祖 5년(1781)에 부임한 李養鼎 牧使, 1903년에 부임한 洪鍾宇 牧使 등의 정방폭포에다 글자를 새겨 두었음을 밝혀 냈습니다. 李養鼎, 洪鍾宇 濟州牧使 등이 정방폭포에 磨崖銘을

만들 때에 徐市과 관련된 蝌蚪 雕虫 12글자가 있었다면 이에 관한 기록을 남겨 있거나 이야기가 전하고 있을 텐데 현재까지 그러한 기록이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명철 선생은 1997년 6월에 황해뱃목 탐사를 실시하여 浙江省의 舟山 군도로부터 흑산도로 향해한 바도 있습니다. 徐福이 中國으로부터 大洋을 航海하고자 하면 바람, 波濤, 海潮流 등 자연 조건을 극복해야할 뿐만 아니라 目的地까지의 海路에 대한 지식이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침반이나 海圖가 없는 徐福의 경우에는 航海者의 감각으로 航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原始的으로 航海할 경우에는 어떻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며, 그 航海에 관한 경험담을 남겨 두어 다시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윤명철 선생께 문의합니다. 航海에 경험담이 전해지고 있다면 航海하여 경유한 구체적인 地名에 관한 자료는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